

지역 메아리

김제시립도서관, 과학 미술 쇼 운영

김제시립도서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문화가 있는 날, 공공도서관으로 떠나'는 가족여행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도서관에서 즐기는 수리수리 마술리 과학 미술 쇼'를 운영한다.

과학미술쇼는 초등학생 자녀로 구성된 가족 20팀을 대상으로 오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30분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가족은 미술관련 책 1권 이상을 읽고 독후감상문을 작성해야 하며, 미술공연 보기는 물론 가족단위의 미술 체험 및 게임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라이온스클럽, 소외계층 선물꾸러미 200세트 기탁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지구 김제 라이온스클럽(회장 안연천)은 25일 김제시(시장 이진식)를 방문,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게 전달해 달라며 사랑의 선물꾸러미 200세트(6,000천원 상당)를 기탁하였다.

이번 '사랑의 선물꾸러미 나눔 행사'는 김제시 주민복지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추천을 받아 중위소득 80% 이하인 저소득 독거노인 200세대에게 전달하였다.

김제 라이온스클럽은 해마다 김제시 저소득 가정에 물품나눔을 실천하여 왔으며 올해에도 회원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 마련한 물품으로 관내 홀로사는 독거노인에게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부녀회, 소화가 무상 공급

김제시 부랴면 새마을부녀회연합회는 그동안 농약공병, 현뭇을 수집하여 판 돈으로 독거노인과 각 마을 새마을부녀회에 소화가 76대를 무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25일 면사무소에서 전달식을 가졌다.

이같은 부녀회의 사업은 농촌에 받치되기 쉬운 농약공병을 집중 수거해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물론 비교적 화재예방의 열악한 환경가운데 살고 있는 독거노인들에게 초동에 진화할 수 있는 소화기를 공급함으로써 쾌적한 환경과 취약계층 화재예방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주위의 칭찬이 자자하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완주군, 무상급식 전면 시행”

박성일 군수 천명... 교육여건 개선·초·중·고 급식 합의 마무리

“완주군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초·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박성일 완주군수가 25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천명했다.

박 군수는 이어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은 '미래세대 육성'이란 굳건 핵심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라며 “청정자연에서 자란 완주군 농산물이 식탁에 올라, 지역의 성장동력인 학생들이 건강과 학업을 쟁기고, 농민의 소득도 높아지는 연쇄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일 완주군수가 25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를 위해 완주군은 내년부터 지역 내 초·중·고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앞서 지난 4일경 전북도교육청과 합의를 마무리했다.

또한 군의회, 완주교육지원청과도 고등학교 무상급식 100% 지원에 대한 의견 조율을 마친 상태다.

대상학생은 지역내 7개 고등학교, 2844명으로, 1992명의 일반 학생은 완주군과 교육청이 각각 50%를 부담하고, 저소득 등 852명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100% 지원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급식에 따른 소요예산은 10억7500만원인데, 군비로 5억8700만원, 교육청 예산 10억8800만원씩 각각 부담한다.

특히 군 지원금은 완주군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통해 식재료를 구입하는 데 쓰이게 된다.

그간 완주군은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2007년, 고등학교는 2009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해 왔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지역내 거주하는 600명에 대해서만 지원했다.

완주군은 초·중·고 무상급식 시행은 교육환경 개선 외에도, 농가의 기획생산에 따른 안정적인 판로 확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관 심신발달도 모, 우수한 학생들의 지역내 학교유치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완주교육지원청 박숙자 교육장은 “교육청과 자치단체간의 소통과 협력으로 학생들에게 보편적 복지를, 학부모에게 교육비 경감을 실현해 신뢰받는 행정구현

의 계기가 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박성일 군수는 이날 기자회견 도중, 내년 6.13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재선 의지가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박 군수는 또 더불어민주당 경선과 관련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민주당 경선들이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지만, 현재 나에게 최대의 화두는 아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단체장으로서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것이다”며 “군민소득과 삶의 질이 다 함께 높은 으뜸도시 완주를 만들기 위해 더 뛰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지방자치 경쟁력 군 부분 ‘전국 2위’

226개 지방자치단체 대상 KLCI 조사서

완주군이 전국 지방자치 종합경쟁력 전국 2위를 달성해 전국 최고 수준의 경쟁력 있는 도시로 평가받았다.

25일 군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제18회 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조사에서 군(郡) 부분 종합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조사(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사장 박우서)이 지난 7월초에서 9월까지 실시한 것이다.

완주군의 종합경쟁력은 1000점 만점에 538.27점을 기록, 전국 82개 군(郡) 중에서 울산 울주군(576.49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특히 평가 지표인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3개 전 분야에서 각각 10위, 3위, 5위로 안착, 도내 시군 중 유일하게 종합 10위권에 오르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2015년 종합평가 4위, 2016년 종합평가 3위에 이어 올해도 전 지표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이면서 완주군의 지방자치 경쟁력순위는 3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완주군이 매년 1000세대 이상의 귀농귀촌, 혁신도

시 조성, 기업유치 등으로 전국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몇 안되는 지역임을 꼽았다.

40만명의 테크노밸리와 64만명의 제2테크노밸리 착공, 중소기업 전용 농공단지 조성도 주요성과로 꼽았다.

이외에도 도농복합도시 특성에 맞춘 기업형 농촌형 일자리 창출이라는 투 트랙 전략으로 지난 3년간 1만4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도 높게 평가했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해 지방자치학회 주관 지자체 재정 및 행정서비스 평가 2위, 지역문화 지수 전국 5위에 오르는 등 대외적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문학을 통해 세상을 보다’

송하춘 김제출신 소설가, 김제지평선아카데미에 초청

제531회 김제지평선아카데미에서는 김제출신 소설가 송하춘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를 초청하여 오는 28일 오후 3시 김제시청 지하대강당에서 ‘문학을 통해 보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이날 강연은 일반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학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볼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관점이 보인다는 내용으로 시민들과 함께 세상이야기를 한다.

송하춘 교수는 김제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국문학과와 고려대학교원을 졸업하고 197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서 ‘한진’로 등단해 작품활동을 시작했으며 제3회 오영수문학

상, 제9회 군산시 채만식문학상을 수상했다.

주요작품으로는 ‘시막의 폭설’, ‘스핑크스도 모른다’, ‘문학에 이르는 길’, ‘한국근대 소설사적’ 등이 있으며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는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다.

또한 이날은 신중동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지평선아카데미 체험의 날’로 신중동 소재 및 주민자치센터 난타 교실 ‘뚝뚝 난타’의 신나는 식전문화 공연도 함께 할 예정이다.

배움으로 행복하고 소통으로 하나 되는 김제지평선아카데미 강연은 별도의 신청없이 김제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차량털이 현행범 검거유공자 김제경찰서장 감사장

박훈기 김제경찰서장은 최근 김제시 통합관계센터를 방문해 성실한 관계 업무를 수행하여 차량털이 절도 현행범 검거에 기여한 관계요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노고를 치하했다.

김제시 통합관계센터에 따르면 지난 15일 새벽에 절도 피의자가 전통신장 내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털이를 시도하였으나 차량의 문이 잠겨 미수에 그친 후 옥상동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열고 차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을 절취한 사건으로 관계요원이 거동 수상자의 위치를 끝까지 추적하여 현행범을 현장에서 검거하는데 기여하였다.

박훈기 김제경찰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관계요원과 경찰관들이 있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성실하게 노력해 주기 바란다”며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장을 수여했다.

최니호 김제시 정보통신과장은 “김제시 통합관계센터는 관내 566대의 CCTV를 이용하여 범죄예방 및 검거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치매노인 안전귀가, 실종 아동유치 확인 등 시민들의 곁에서 안전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실시

완주군이 추석을 맞아 지역상권 활성화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 전통시장 홍보에 나섰다.

25일 군은 병동생강골시장에서 완주군 경제살리기운동본부 및 여성단체협의회, 군의원, 공무원과 지역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완주군 으뜸상품권 구매와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동참을 적극 홍보했다.

특히 완주군은 상품권 할인, 구입편의를 개선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올해 1월부터 완주 으뜸상품권 할인율을 3%에서 5%로 상향조정했으며, 또한 현금으로만 구매 가능했던 으뜸상품권을 농협은행 완주군 출장소에서 농협카드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박성일 군수는 “이번 추석을 맞이해 많은 군민들이 완주 으뜸상품권을 적극 활용해 전통시장을 이용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전통시장 만들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진안고원 청명농산물 판매소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마산업과
063-430-2951